

데보라 스미스의
『소년이 온다』 번역,
과연 탈식민적 번역일까?

토론

이혜승

두 주인 섬기기

- 번역은 원문의 단어를 드러내야 한다.
- 번역은 원문의 사상을 드러내야 한다.
- 번역은 원작처럼 읽어야 한다.
- 번역은 번역처럼 읽어야 한다.
- 번역은 원작의 문체를 반영해야 한다.
- 번역은 번역의 문체를 가져야 한다.
- 번역은 원작과 동시대의 것으로 읽어야 한다.
- 번역은 번역과 동시대의 것으로 읽어야 한다.
- 번역은 원문에 덧붙이거나 생략해도 상관없다.
- 번역은 원문에 덧붙이거나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운문의 번역은 산문이어야 한다.
- 운문의 번역은 운문이어야 한다
- (Savory, 1968, Newmark, 1981:38 재인용) .

자국화 이국화

번역문 문화권에 내재된
지배적 가치체계가
요구하는 것

부응 VS. 저항

솔라이마허 『번역의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1813)

“가능한 한 작가를 내버려두고 작가에게 독자를 움직이거나, 독자를 그냥 놔둔 채 작가를 독자에게 데려가는 것”

“번역의 지향 자체가 타자와의 어떤 관계를 텍스트 차원에서 열어가는 것이자 낯선 것을 들여오는 매개작업을 통해 자국적인 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에 모든 문화가 가지는 자민족중심주의적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번역의 본질은 “열림, 대화, 혼혈, 탈중심”

“원문의 언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작품 속 무언가가 번역을 통해 드러나게 되며, 번역은 원전을 다른 각도에서 돌려보게 만듦으로써 원전의 이면을 드러내준다.”

(베르만,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현재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반면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데는 가장 인색한 언어”

이국화 번역은 번역이 가지고 있는 자민족 중심적인 폭력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세계가 처한 현 상황에서 전략적인 문화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는 영어권 주도적인 문화 교류에 반기를 드는 것이며 ... 민주주의적인 지정학 관계를 지향하고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차별, 문화적 나르시시즘과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형식이다.

(베누티,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영어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번역문의 유창성, 그 이면에는 외국의 색채를 자국화 즉, 영어화해서 자국민 중심주의를 확대하고 투명성이라는 환상을 통해 번역가의 지위를 부차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논리가 자리함

선택과 결정

자국 문화가 다른 문화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자국 문화권의 가치체계, 원문의 언어, 문화적 가치

거시적 번역 문화, 영어지상주의

번역의 방향 (영-한, 한-영)